



An Archive of 21st Century Beauty CHOI Hyesook 2022.5.20 – 6.18

최혜숙 개인전
21세기 미(美)에 대한 기록물



An Archive of 21st Century Beauty

CHOI Hyesook

최혜숙 개인전 : 21세기 미(美)에 대한 기록물

2022. 5. 20 – 6. 18

GREETING 03

최혜숙 개인전을 개최하며 | 김효정, 갤러리 스킴로 대표

Presenting CHOI Hyesook's Solo Exhibition
Hyojung KIM, Director of Gallery Sklo

ARTIST STATEMENT 04

ESSAY 06

외연(外延)에서 본질로의 의식의 내향(內向)을 이끄는 유리작업 | 하계훈 (미술평론가)

Journey in Glass: Toward A Consciousness of Essence **24**
HA Kyeheon (Art Critic)

WORKS 09

ARTIST BIOGRAPHY 28

Cover : 21세기 버전 미인도 21C Version of Portrait of A Beauty | 2022 | h90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detail of 시선시리즈-3 My Unconscious Gaze-3 | 2022 | h49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Presenting CHOI Hyesook's Solo Exhibition

written by | Hyojung Kim, Director of Gallery Sklo

갤러리스클로 2022년 두번째 전시로 최혜숙 작가의 <21세기 미(美)에 대한 기록물>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최작가는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와 유리를 전공하고 미국의 RIT에서 유리를 전공하였으며, 2019년부터 먼 미래에 21세기를 돌이켜 볼 때 현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을 상상하며 <유물 시리즈>를 처음 선보여 왔고, 본 전시에서는 좀 더 작가 본인의 시선에 집중하며 신작을 선보입니다.

현 시대의 소비사회에서 아름답고 자기 만족적인 상징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명품이라는 모티프를 작가의 주재료인 유리의 투명하고 반짝이는 물성에 대비시키고, 훗날 빛을 잃고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명품으로 등장하는 핸드백, 하이힐, 향수 등의 장식품이 현재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유물로 표현되고, 과거에서 소환된 신윤복의 미인도에도 출현하며 작가의 풍부한 상상을 바탕으로 전시는 이루어 집니다. ‘빠뜨 드 베르 pate de verre’ 라는 유리의 기법을 사용한 반투명하고 거친 유리의 표현은 허상과 같은 부서질 것 같은 형태와 질감에서 현대사회의 아슬함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거친 유리들로 만들어진 미래의 유물 아카이브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Gallery Sklo's second exhibition of 2022 is 'An Archive of 21st Century Beauty,' a solo show of works by artist Choi Hyesook. Choi studied ceramics and glass at Hongik University and earned her second MFA in glass at RIT in New York. Since 2019, she has been exploring the question of what might become the historical artifacts of the 21st century, far in the distant future — leading to the creation of her 'Relic' series. For this exhibition with Gallery Sklo, the artist will also be debuting a series of new works with a closer focus on her own gaze.

Luxury goods, which function as symbols of beauty and self-fulfillment in today's consumer society, are Choi's chosen motif — and by exploring this motif through the transparent, sparkling properties of glass, she shows, too, how these same objects dull and disintegrate over time. In this exhibition, designer handbags, high heels, and perfumes are displayed as the representative relics of our current era, while also making a surprise appearance in a reproduction of Shin Yun-bok's legendary painting 'Portrait of a Beauty,' summoned from the distant past by Choi's rich imagination. Using a glass technique called 'pate de verre' to produce a rough, translucent effect, the artist creates an illusion of fragility that gestures toward the precarity of contemporary society. Today, we invite you to experience this archive of future relics in rough glass.

Work in progress
Portrait of a Beauty Series 미인도 시리즈

“오늘을 가까이 들여다 보고 관찰하며 나의 시선을 기록함으로써 미래의 과거인 이 시대를 표현해 보고 싶었다.” - 작가노트에서 발췌

21세기 미(美)에 대한 기록물, 그 조각을 맞추다.

현 시대의 물질주의와 소비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내면의 미가 아닌 외적인 미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은 지극히 평범한 물건들이지만 명품이라는 특별함으로 자기만족의 힘을 가지는 듯 하다. 이렇게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장식의 도구로써 핸드백, 구두, 향수 등을 통해 보여주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이러한 이 시대의 미의 개념과 본질을 지금 우리의 일상을 통해 들여다보고 먼 미래에 현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의 오늘을 기록해 본다. 현대의 소비적 사회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물을 핸드백, 구두, 향수 등이라 상상해 보았고, 영원무궁한 존재일 것 같은 물건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오늘을 가까이 들여다 보고 관찰하며 나의 시선을 기록함으로써 미래의 과거인 이 시대를 표현해 보고 싶었다.

작품의 소재인 유리의 깨지는 물성을 통해 궁극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는 영원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징물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유물로써 그 시간이 지닌 힘은 유리의 투명성도 색도 아닌, 유리의 불투명함과 유리가 고열에서 여러 번 녹아 굳고 단단해지는 견고함이다.

미에 대한 개념은 시대마다 다르고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먼

훗날에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와 정의는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현재의 문화와 정서를 가까이 살펴보면서 미래의 과거가 되는 오늘을 흥미롭게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가까운 미래인 100년 뒤에는 우리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기만족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에 가치를 둘지 질문을 던진 것이 2019년부터 시작된 ‘유물 시리즈’의 발단이 되었고, 본 전시에서는 좀 더 나의 시선에 집중하게 되었다.

전시 작품 중 '시선 시리즈'는 무의식적으로 향하는 나의 시선 이미지들이며 투명필름으로 소중한 사진들을 코팅했던 90년대 초반의 추억을 회상하며 표현한 작품이다. 메인 작업은 자신을 치장하는 21세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물건들이며 수백 년 뒤 꼬깃꼬깃 접은 이 낡은 사진이 펼쳐졌을 때 미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By looking closely around me today and recording my observations, I hoped to capture what would one day be the past.” - excerpts from the artist statement

Archiving 21st Century Beauty: An Assemblage

Amidst the materialism and consumer culture that defines our current era, the surest way to showcase one's identity and beauty — beauty of the external kind, that is, rather than internal — is through the daily objects that surround us. In this setting, then, through its sheer extravagance, the luxury good has the power to bestow a real degree of self-satisfaction. Handbags, shoes, perfumes, and more; all decorative tools for elevating one's own beauty. But what is the actual, ultimate beauty these objects allow us to access?

As I examine the concept and essence of beauty in this current age through the lens of our daily lives, I seek to record the present day as it might be seen in the distant future. I imagine these same handbags, shoes, and perfumes to be the symbolic relics of this twenty-first century consumer society; but of course, no one can know what the future actually holds for these objects, no matter how perpetual they may seem. By looking closely around me today and recording my observations, I hoped to capture what would one day be the past.

Complete, everlasting beauty and the value assigned to it is, in fact, neither complete nor everlasting — as is expressed by the fragility of glass, my chosen material. And

when it comes to glass, more time (that which transforms 'object' into 'relic') means more opacity and substance rather than transparency or color: the result of multiple cycles, melting and hardening in high heat.

Notions of beauty are different in every age, and will continue to change. Still, though it may be impossible to say what the standard and value of beauty will be in the distant future, I have been fascinated by the project of recording the culture and sentiment of this, my own era and the eventual past of the future to come. What will we value, just a short 100 years from now, as an effective means of expressing our beauty and self-satisfaction? This is the question that led to my 'Relic' series, which began in 2019 — as well as to focusing more on my own gaze, in this current exhibition.

In this exhibition, the 'Gaze' series draws on images that have long held my unconscious gaze, influenced by memories of the transparent film once used to coat precious photographs in the early 1990s. The main work remains the objects that symbolize 21st century standards of beauty through self-decoration, asking without words what the people of the future will think, hundreds of years from now, as they unfold this creased and crumpled old photograph.

외연 外延에서 본질로의 의식의 내향 內向을 이끄는 유리작업

글 | 하계훈 (미술평론가)

미술 재료들 가운데 유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도 있다. 투명하고 영롱한 유리는 시각예술의 재료 가운데 높은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성을 가졌으며, 과거부터 이러한 물성과 희소성 때문에 매우 귀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술 작품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거의 격을 높이고 여러 집기를 화려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유리라는 재료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는 그 어떤 시각예술 재료보다 빛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물질이다. 유리 작품은 빛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작용함으로써 작품의 예술성을 고양시킨다. 판유리의 경우는 건축과 결합하여 공간의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접점에 자리잡고서 벽으로 분할된 양쪽 공간에 전개되는 빛을 다루어 왔다. 유리창은 빛의 작용에 의해 투과와 반사, 그리고 굴절을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시각적 체험을 회화나 조각보다 풍부하고 환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예술적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이러한 작용은 소형 유리 오브제 작품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혜숙은 유리를 주 재료로 다루는 작가로서 이러한 유리의 속성을 이용하여 작업의 초기에는 투명하고 영롱한 유리 오브제에 원색의 채색을 가미하여 여성의 활동 도구라 할 수 있는 가방이나 구두 등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유리와 빛의 상호 작용이 주는 시각적 효과를 놓치지 않았으며 일부 작품은 작품과 생활기의 경계를 넘나들 수도 있는 위치에 좌표를 정해주기도 했었다. 본래 가죽이나 형겜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생활 기물들은 유리를 통해 일상의 쓸모를 초월하여 한결 더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변신하였다. 실생활을 넘어선 오브제로서의 유리 가방과 유리 구두는 바라보는 여성들의 상상력과 환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가방과 구두 등의 오브제에 수입 고가품의 형태와 로고 등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직설적이고 도발적이기까지 한 메시지를 담아왔다. 최혜숙이 이렇게 유리로 재현해내는 ‘명품’이라고 불리는 수입 고가품 물건들은 밤새 매장 앞에서 줄을 서서라도 구입하려는 성취와 욕망의 대상이며, 마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현대사회의 신분증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우리가 입고, 메고, 신는 물건이 심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했다. 연구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희귀하고 고가품일수록 자신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격적 분위기에 대항하는 방패와 같은 대항력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따라서는 그 물건들이 분위기와 에너지를 충전해준다고 믿었다고 한다.

최혜숙 작가는 유리가 가진 고급스러운 속성과 거기에 가미되는 유명 상표를 통해 이처럼 생성되는 자신감을 신뢰하던 초기의 의식이 미국 유행 생활을 계기로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멘텀을 맞이했다고 한다. 아름다움은 불변하는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고 했다. 즉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생성과 성장을 거쳐 소멸에 이르는 순환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마치고 다시 이 사이클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변형, 반복하기도 한다.

작가는 유리의 기본 속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화려하고 영롱한 유리 오브제가 시간이 흐르면 그 속성을 내려놓으면서, 흙 속의 물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투명성과 선명도를 망각이나 시간의 축적과 맞바꾸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오브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에도 변화와 전환을 일으켜준다. 투명하지도 않고 영롱하지도 않은 유리에 담기는 시공간적 축적과 속성이 뿜어내는 사유는 시각예술의 즉물적 해석을 좀 더 초월적(meta) 해석으로 전환하게 만들어준다.

최혜숙이 이러한 유리 작업을 통해 일으키는 초월적 의식과 태도는 역사 의식과 결합하여 ‘미(美)’의 항상성과 역사를 사유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본래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본래의 속성을 지움으로써 역사의 메타포를 담은 도구이자 장(場)이 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의 사유의 화두와 주제를 두 방향으로 유리 작품에 담아낸다. 먼저 작가가 처음부터 제시해왔던 오브제로서의 유리작품에 시간의 진행에 따라 그 형태의 자연스런 부식과 소멸이 담겨짐으로써 예술적 사유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작품들이 한 방향을

ESSAY

Right: 21세기 장식물 21st Century Accessories | 2022
h120 x w12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이룬다. 그리고 다른 한 방향은 이렇게 형상변형이 이루어지는 오브제들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사유와 명상을 시각적으로 투사하는 회화적 이미지로서의 유리판 회화 형식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려했던 가방과 구두의 형태와 외피가 소멸해가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사물의 외연(外延)에서 본질로의 의식의 내향(內向)을 이끌게 되며, 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은 과거의 아름다움이 오늘날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적 복합대위(複合代位)를 유도하게 된다. 최혜숙은 우리 미술사에서 조선시대의 미(美)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윤복의 미인도 속의 여인에게 가방과 구두를 제공하여 시간을 초월하는 미의 현존이 가능한 것인가를 실험한다. 또한 마치 낡은 사진처럼 풍화된 유리판 위에 곳곳이 헤어져 남아 보이는 고급 명품 가방과 그것을 쥐 인물의 손 부위를 확대 표현하여 그 오브제들의 기능이 지속가능한 것인가를 질문하는 듯하다.

최혜숙 작가의 최근 작품들이 주는 반전은 자신이 다루는 매체의 기본적인 속성을 최대한으로 배제하는 역설적인 표현력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유리가 영롱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그 기능이 소멸하는 것일까. 혹은 유리의 기본적 속성이 오히려 그 곁에 있는 회화나 사진 이미지와 결합하여 시각적 감흥을 넘어서서 정신으로의 확장된 미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것인가.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와 시를 지어 교환하며 플라토닉한 사랑을 나누었던 비토리아 콜로나는, 예술가의 작품에 즉물적으로 감탄하는 자는 그 작가를 그저 조금 이해하는 것뿐이며, 작가의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최혜숙의 작품의 변화과정을 추적해보면 우리의 관심이 작품에서 작가로의 자연스럽게 이행되면서 사유의 깊이를 더해주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가가 선택한 주제가 선명한 것과 대비하여 최혜숙이 다루는 유리라는 재료의 속성이 주는 아이러니가 작품에 대한 흥미를 더해주면서 작가를 더 깊이 알고 싶게 해준다.



Relic Series 유물 시리즈



21세기 유물시리즈_가방8 A Relic from the early 21st century_Purse8 | 2022 | h20 x w31 x d11 cm | Kilnformed and flameworked glass



21세기 유물시리즈_가방5 A Relic from the early 21st century_Purse5
2021 | h36 x w37 x d14 cm | Kilnformed glass



21세기 유물시리즈_가방7 A Relic from the early 21st century_Purse7
2021 | h36 x w39 x d20 cm | Kilnformed glass



21세기 유물시리즈_가방4 A Relic from the early 21st century_Purse4
2021 | h35 x w39 x d20 cm | Kilnformed glass



허상의 이미지 시리즈 A Series of Virtual image
2021 | h40 x w35 x d15 cm | Cast, coldworked and flameworked glass

Portrait of a Beauty Series

미인도 시리즈



21세기 버전 미인도 21C Version of Portrait of A Beauty | 2022
h90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21세기 버전 미인도 5 A Series of 21C Version of Portrait of A Beauty 5
2021 | h60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21세기 버전 미인도 6 A Series of 21C Version of Portrait of A Beauty 6
2021 | h60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21세기 버전 미인도 8 A Series of 21C Version of Portrait of A Beauty 8
2021 | h60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21세기 버전 미인도 13 A Series of 21C Version of Portrait of A Beauty 13
2021 | h60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21세기 버전 미인도 14 A Series of 21C Version of Portrait of A Beauty 14
2021 | h60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Gaze Series 시선 시리즈



시선 시리즈-1 My Unconscious Gaze-1 | 2022 | h49 x w53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시선 시리즈-2 My Unconscious Gaze-2 | 2022 | h49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시선 시리즈-3 My Unconscious Gaze-3 | 2022 | h49 x w50 x d2 cm | Kilnformed and screenprinted glass

Journey in Glass: Toward A Consciousness of Essence

Written by | HA Kyehoon (Art Critic)

When it comes to art materials, none fascinates more deeply than glass; nothing, after all, is more dangerous, more potentially deadly. Transparent and brilliant, glass can claim expressive properties other materials cannot, and indeed, it is for these same properties that glass has so long been considered precious. Throughout history, glass has been used not just in works of art but to beautify and improve the quality of daily living spaces.

Interaction with light is crucial when it comes to glass — more so than with any other material in visual art. The way light functions on the exterior of a glass piece, in particular, enhances its artistry. In the case of plate glass, architecture also enters the equation;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interior and exterior, dividing a space into two and moderating the distribution of light in both. Through the transmission,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light, glass windows daily enrich and enliven our visual experience more profoundly than any painting or sculpture, contributing greatly to the amplification of the artistic imagination. And indeed, these same principles apply to smaller glass works in precisely the same way.

As an artist who works mostly with glass, Choi Hyesook is skilled at deploying the material’s inherent attributes with intent. In her early works, she adds primary colors to transparent, brilliant glass objects in the form of bags and shoes — what we might consider the tools of the female trade. Along the way, Choi never fails to harness the visual impa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glass and light, going so far as to set the coordinates of certain select pieces precisely at the boundary that separates art from life. These objects of daily life, usually made of cloth or leather, effectively transcend their ostensible daily use–value, becoming something far more splendid and compelling. The glass handbag and the glass slipper: objects beyond the realm of real life, these are pieces that provide a sweeping satisfaction for the female gaze, a thorough fulfillment of imagination and fantasy.

By introducing the forms and logos of certain famous import brands, the artist raises the stakes of these objects even further, adding a directness and provocation to the mix. With these glass reproductions of “luxury goods,” Choi taps into the same deep desire that moves people to queue all night long in front of a department store, the longing to own and display a concrete marker of status and achievement universally recognized by contemporary society.

Not long ago, a study conducted at a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looked into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hat we wear and carry. Unsurprisingly,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rarer and more expensive these products happened to be, the more confident the subject tended to feel. What is more, these clothes, bags, and shoes also appeared to serve as something of a psychic shield, acting as a kind of barrier in socially aggressive environments. Certain individuals, in fact, even reported a belief that these objects replenished energy and boosted atmosphere.

According to Choi, her early consciousness of this kind of brand–bestowed confidence, heightened further through combination with the already–luxurious attributes of glass as a material, gained a new momentum and direction during her time studying abroad. Is beauty immutable? Greek philosopher Heraclitus claimed that “all things are in a state of flux.” So all things, then, are always changing. And this change, in turn, forms a cycle of production and growth and extinction that reaches completion, only to expand or decrease and cycle again, a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repetition ad infinitum.

At this point, the artist shifts in the direction of removing the basic properties of glass from her work. As time passes, the splendid, brilliant glass objects surrender their key attributes and, like most objects buried in soil, end up trading transparency and clarity for oblivion, or the accumulation of time itself. And of course, this is more than just some simple physical phenomenon; this is a transformation in our own consciousness, a shift in the gaze alighting upon the object. Indeed, the reasons given off by the ripening of this accumulated time and space — held in this glass now neither transparent nor brilliant — takes the impromptu interpretation of visual art to a more meta–interpretative place.

The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that Choi Hyesook creates through these works of glass come together with our historical consciousness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constancy and history of “beauty” itself. At this point, the work is not about showcasing its own materiality but rather about erasing those same inherent attributes, rendering the glass both tool for and site of historical metaphor, instead.

In this exhibition, the themes and topics that most preoccupy the artist find their way into the work in two distinct ways. The first can be understood as those works in which the natural corrosion and dissolution of the glass forms over time effectively showcase a deepening of Choi's original artistic intentions — as presented from the very beginning. The second, meanwhile, takes the reflections and meditations evoked by the physical transformations of these objects and projects them as images, taking the form of paintings on plate-glass.

Bearing witness to the gradual dissolution of the showy luxury bag and shoe forms naturally directs the consciousness from considerations of the external to the internal, to the interiority and essence of the object itself. And imagining future beauty, of course, triggers a series of time-based complex substitutions involving the ways in which the beauty of the past reveals itself today. By providing fancy bags and shoes to the woman in Shin Yun-bok's legendary painting "Portrait of a Beauty" (widely considered to be the standard of Joseon Dynasty feminine beauty), Choi tests the existence of a beauty that transcends time. At the same time, by creating the effect of an old photograph with the use of a weathered glass plate and painting the luxury handbag in question to look old and worn, even emphasizing the hand of the figure that holds it, the artist seems to be questio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se objects actually carrying out their function.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 effectiveness of this reversal in Choi Hyesook's recent works speaks to the sheer power of this new and paradoxical mode of expression in which she erases, as much as possible, the basic properties of her chosen material. Does glass, in fact, lose its function if it is neither brilliant nor transparent? Or, indeed, can the basic properties of glass perhaps be combined with paintings or photographic images to evoke an aesthetic experience that expands into the psyche, beyond the realm of the visual?

Vittoria Colonna, the Renaissance Italian noblewoman who exchanged poetry with Michelangelo over the course of a platonic love affair, once said that those who admire the work of an artist can only claim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rtist as a whole, whereas those who understand the mind of an artist will come to know them more deeply, and thus truly respect them. Tracking the evolution of Choi Hyesook's oeuvre over time, our interest shifts naturally from the work to the artist, adding depth to the process of reflection. And along the way, as the irony of the contrast between the clarity of her chosen themes and the properties of her chosen material adds yet more interest to the work in question, we find ourselves wanting to know the artist herself, more and more.



21세기 유물시리즈_하이힐 A Relic from the early 21st century_High heels | 2019 | h15 x w24 x d10 cm | Pate de verre and kilnformed glass

Bullseye projects | 'Tg: Transitions in Kiln-Glass', Finalist | Bullseye Glass Co.'s Biennale Juried Competition
Works by award winner and finalists are on view in an exhibition hosted by Bellevue Arts Museum (WA, U.S.A.) through May 29, 2022;
touring to Pittsburgh Glass Center in late 2022, and Houston Center for Contemporary Craft in 2023.

EDUCATION

- 2016 M.F.A.,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IT), 유리전공 석사, NY, 미국
- 2010 M.F.A.,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과 유리전공, 미술학 석사, 서울
- 2007 B.F.A.,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유리과 학사, 서울

CERTIFICATES

- 2016 Photo-sandblasting & Glass kiln-working class,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Stained glass & Glass painting class, Pittsburgh Glass Center, Pittsburgh PA, USA
- Flameworking class, Pilchuck Glass School, Stanwood WA, USA
- 2015 Pate de Verre class,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2014 Glass casting & Mold-making class,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2012 Flameworking class,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2011 Workshop Painting & drawing with glass, Bullseye Resource Center, Portland OR, USA

SOLO EXHIBITIONS

- 2022 21세기 미(美)에 대한 기록물, 갤러리스클로, 서울
- 2021 Treasure Your Inner Beauty, 크라프트온더힐 갤러리, 서울
- 2020 Another Materiality of Glass, KCDF갤러리, 서울
- 2019 A Relic of the Early 21st Century, KCDF윈도우갤러리, 서울
- 2018 How'd You Define Yourself?, Black Tom n Toms Gallery, 서울
- 2017 Fill the Glass, 아름다운차 박물관, 서울
- Get Pretty, 갤러리아즈, 서울
- 2016 The Power of Beauty, Dyer Art Center, Rochester, NY, USA
- 2010 Emerging Artist from Topos, TOPOHAUS, 서울

GROUP EXHIBITIONS (selected)

- 2022 한국화랑미술제, 갤러리스클로, 설텍, 서울
- Collect London, Online Viewing
- 참여, 갤러리스클로
- Bullseye projects 'Tg: Transitions in Kiln-Glass', Bellevue Arts Museum, WA, 미국
- The Human Spirit: Propositions on Resilience in these Irregular Times: a Virtual Indo-Korean Ceramic and Glass exhibition', Inko Centre, Chennai, 인도
- 2021 Craft, Design Studio, 한국조형디자인협회 국제조형디자인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 Kiaf SEOUL, 갤러리스클로, 코엑스, 서울
- CONNECTIONS, 2021 Glass Art Society(GAS) Conference GAS Member Exhibition, 미국
- 한국화랑미술제, 갤러리스클로, 코엑스, 서울
- 2020 GLASS FLEX, 갤러리스클로, 서울
- From Matter To Object, BKID, 서울
- Evolution in Korean Contemporary Glass 2020, 신세계백화점, 충청
- 2019 Craft Trend Fair, 한국전통문화전당관 부스 (Selected), COEX, 서울
- Future by hands, Int'l Symposium Art &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전통문화창의명품육성사업 '혼수', KCDF 갤러리, 서울 /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전통문화전당)
- 2019 Contemporary Crasign초대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 Material World, Hodge gallery, Pittsburgh Glass Center, Pittsburgh, PA, USA
- 2019 Similarity and Difference, Int'l Art &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Burapha University, Thailand

AWARDS & GRANTS

- 2021 Tg: Transitions in Kiln-Glass, Bullseye Glass Co.'s Biennale Juried Competition, Finalist, 미국
- 2020 New Glass Review 41 Selected, 코닝유리유지업, 미국
- 2019 전통문화창의명품육성사업 협업선정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전통문화전당)

- 2018 우수공예품지정제도 신규상품 선정공모수상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예디자인 스타상품개발 My Home Collection 기획공모수상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2017 서울공예상공모전 / 특선
- The 13th Art kudos International Juried Art Competition & Exhibition, USA / Finalist

- 2016 Emerge 2016 Bullseye Project, Portland OR, USA / Finalist
- Annual National juried exhibition of Small works, Main street arts gallery, NY, USA / Honorable mention

- 2015 The 3rd Juried digital catalogue Glass Art Society Int'l Online Student Exhibition /Selected Work NICHE Awards / Finalist

- 2011 공예트렌드페어 올해의 작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 2010 제2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공예부문 / 우수상
- 제1회 Bell Art & Design Award / 금상

- 2007 제5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은상
- 홍익대학교 총장상 표창

COLLECTIONS 토탈미술관, 서울



EDUCATION

- 2016 M.F.A in Glass,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NY, USA
- 2010 M.F.A in Ceramics & Glass,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2007 B.F.A in Ceramics & Glass, Hongik University, Seoul

CERTIFICATES

- 2016 Photo-sandblasting & Glass kiln-working class,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Stained glass & Glass painting class, Pittsburgh Glass Center, Pittsburgh PA, USA
- Flameworking class, Pilchuck Glass School, Stanwood WA, USA
- 2015 Pate de Verre class,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2014 Glass casting & Mold-making class,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2012 Flameworking class,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2011 Workshop Painting & drawing with glass, Bullseye Resource Center, Portland OR, USA

SOLO EXHIBITIONS

- 2022 An Archive of 21st Century Beauty, Gallery Sklo, Seoul
- 2021 Treasure Your Inner Beauty, Crafts on the hill gallery, Seoul
- 2020 Another materiality of glass, KCDF gallery, Seoul
- 2019 A Relic of the Early 21st Century, KCDF window gallery, Seoul
- 2018 How'd You Define Yourself?, Black Tom n Toms, Seoul
- 2017 Fill the Glass, t museum, Seoul
- Get Pretty, Gallery is, Seoul
- 2016 The Power of Beauty, Dyer Art Center, Rochester, NY, USA
- 2010 Emerging Artist from Topos, TOPOHAUS, Seoul

GROUP EXHIBITIONS (selected)

- 2022 2022 Galleries Art Fair, Gallery Sklo, SETEC, Seoul
- Collect London, Online Viewing, Gallery Sklo
- Bullseye projects 'Tg: Transitions in Kiln-Glass', Bellevue Arts Museum, WA, USA
- The Human Spirit: Propositions on Resilience in these Irregular Times: a virtual Indo-Korean Ceramic and Glass exhibition', Inko Centre, Chennai, India
- 2021 Craft,Design Studio 2021, The Korea Association of Art & Design Int'l Art & Design Exhib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 2021 Kiaf SEOUL, Gallery Sklo, COEX, Seoul
- Korea Contemporary Crafts Young Artists Exhibition Craft Week, Apollon gallery, Gyeonggi-do(Organiz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Korea Craft&Design Foundation, Korean Crafts Council)
- Connections, 2021 Glass Art Society Conference GAS Member Exhibition, USA
- 2021 Galleries Art Fair, Gallery Sklo, COEX, Seoul
- Glass Flex : Korea Studio Glass, Gallery Sklo, Seoul
- From matter To object, BKID, Seoul
- Evolution in Korean Contemporary Glass 2020, Shinsegae Department Store, Chungcheong
- 2019 Craft Trend Fair, with Korean Traditional Culture Center (selected artist), COEX, Seoul
- Future by hands, Int'l Symposium Art&Design Invitation Exhibition, Ewha Womans Univ., Seoul
- Traditional Cultural Creative Luxury Product Development Project, KCDF gallery, Seoul / Jeonju Craft Exhibition Hall
- 2019 A Relic of the Early 21st Century, Samcheok City Dogye Yurinara 1st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Gangwon-do
- Contemporary Crasign Invitation Exhibition, Hongik Univ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 Material World, Hodge gallery, Pittsburgh Glass Center, Pittsburgh, PA, USA
- Similarity and Difference, Int'l Art&Design Invitation Exhibition, Burapha University, Thailand

AWARDS & GRANTS

- 2022 Finalist, Tg: Transitions in Kiln-Glass, Bullseye Glass Co.'s Biennale Juried Competition, USA
- 2021 Hongik University Excellent Faculty Citation, Seoul
- 2020 Selected, New Glass Review 41, Corning Museum of Glass, USA
- 2019 Traditional Cultural Creative Luxury Product Development Project Collaboration (Organizer,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 2018 Excellent Crafts Designation System Selection Contest Award (Organizer,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Korea Craft&Design Foundation)
- Star Product Development Planning Competition Award (Organizer,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Korea Craft&Design Foundation)
- 2017 Finalist, The 13st Art kudos International Juried Art Competition & Exhibition, USA
- 2016 Finalist, Emerge 2016 Bullseye Project, USA
- Honorable mention, 3rd Annual National juried exhibition of Small works, Main street arts gallery, USA
- 2015 Selected Work – NICHE Awards / Finalist, 3rd Juried digital catalogue Glass Art Society Int'l Online Student Exhibition
- 2011 Artist of the year award, Craft Trend Fair,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Seoul
- Honorable mention, 1st Gyeong-gi Int'l CERAMIX Biennale Glass Sculpture Contest
- 2010 Second Prize, 29th Korea Art Competition, Korea Gold Prize, 1st Bell Art & Design Award, Korea
- 2007 Silver Prize, 5th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Korea
- President's Award, Hongik University, Korea

COLLECTIONS Total Museum,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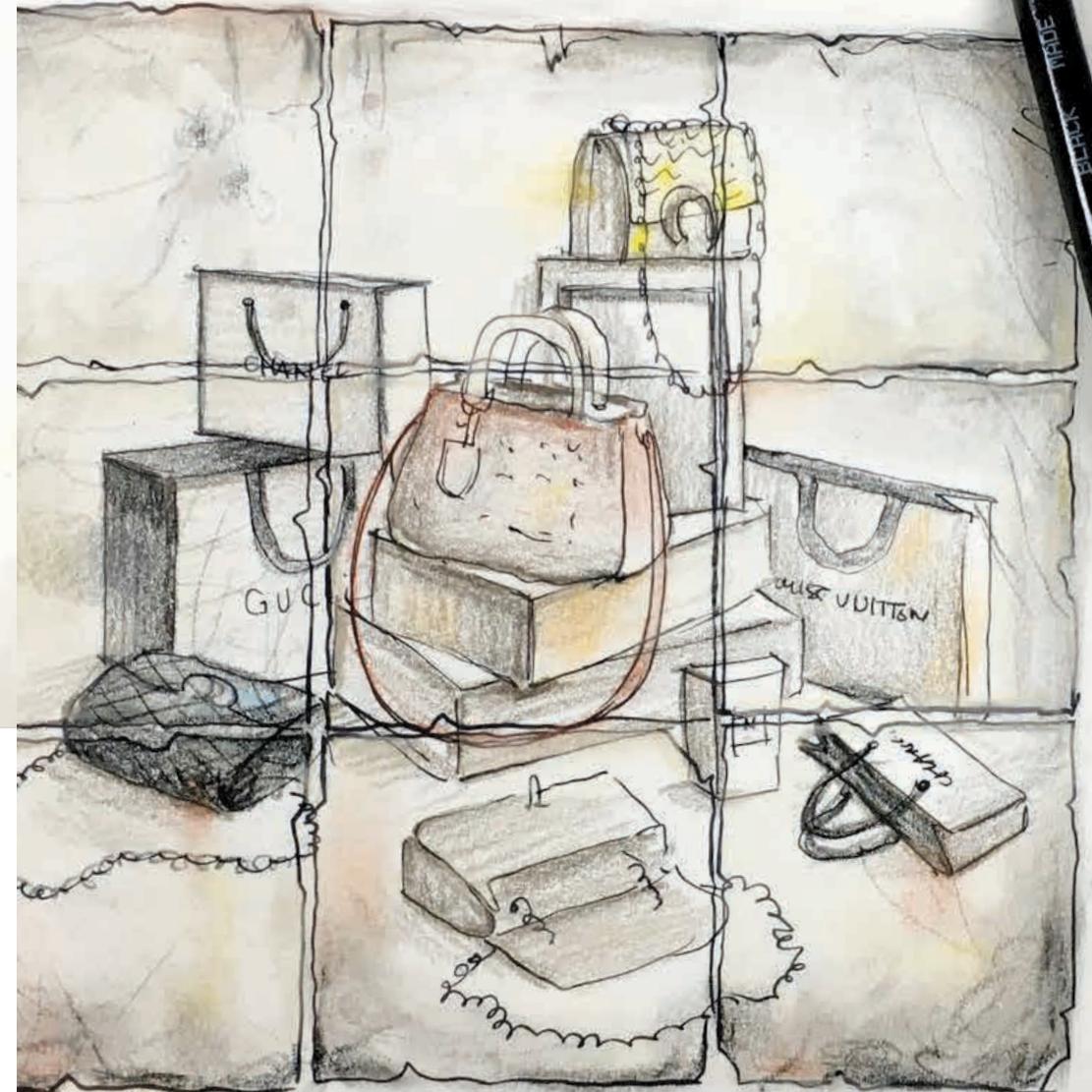
LV Ivory



Hermes Orange



우 - 리오 가방, 리오 아방가르드 스텀



② SUN
① a
③ SUN
Shopping
(Chanel w



스케치 | Sketchs

도록 진행 PUBLICATION 갤러리 스킨로 Gallery Sklo

디자인 DESIGN graphicat
번역 TRANSLATION 마야 웨스트 Maya West
사진 PHOTO 명용인 MYOUNG Yongin

인쇄 PRINT 비주얼볼 Visual VOM

본 도록의 모든 권리는 갤러리 스킨로에 있으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Gallery Sklo.
Copyright © 2022 All rights reserved

후원 SPONSOR

